

MOST 과학기술부	보도자료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	보도 시점		'05. 3. 23(수) 조간부터		
				자료배포일	'05.3.22(화)	매 수 총 17 매
당	방사선안전과	과 장	이인일	02) 2110-3670		
공보관실	당	방사선안전과	사무관	이정기	02) 2110-3673	

「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정

- 비파괴검사기술 진흥 및 산업의 육성기반 조성 -

- 과학기술부(부총리 겸 장관 吳明)는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, 그 성과를 활용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「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하여 3월말경 공포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.
- 이번에 제정되는 법률의 주요내용은
- 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
 - 전문 기술인력의 양성과 검사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
 - 일정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과학기술부에 등록한 적격한 업체만이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
 -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사결과서에 책임자와 검사자가 서명하는 검사실명제를 도입하는 것 등이다.

- 비파괴검사(NDT; Non Destructive Testing)기술은 방사선 및 초음파, 전자기 등의 물리적 현상을 응용하여 물체(철/비철 금속)를 파괴하지 않고 원형의 상태에서 미세한 균열(결함) 등을 찾아내는 검사기술로서 국가기간 산업시설의 안전성 검사와 제품의 품질관리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다.
- 우리나라에 1960년대 초 도입된 동 검사기술은 원자력·화력·수력 발전소 등 발전설비의 주요부품 및 각종 배관, 유조선·LNG 저장탱크 등의 중화학시설, 교량이나 비행기부품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활용되어 안전성 확인과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하여 왔다.
- 「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정으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그 기술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중요시설물의 안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.
- 금번 제정되는 「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(2005. 12월말경)부터 발효될 예정이다.

- <붙임> 1. 비파괴검사 방법
 2. 비파괴검사의 활용분야
 3. 국회 통과 「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전문